



미 증시, 연준발 불확실성, 고용 지표 경계심리 등으로 약세

미국 증시 리뷰

3 일(목) 미국 증시는 연준의 회사채 및 채권 ETF 매각 발표, 5 월 ADP 민간고용 서프라이즈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, 달러화 강세 출현이 테크주를 중심으로 약세 압력을 가하면서 하락 마감(다우 -0.1%, S&P500 -0.4%, 나스닥 -1.0%). 업종별로는 유틸리티(+0.5%), 필수소비재(+0.5%), 헬스케어(+0.40%) 등이 강세, 경기소비재(-1.2%), 기술(-0.9%), 커뮤니케이션(-0.7%) 등이 약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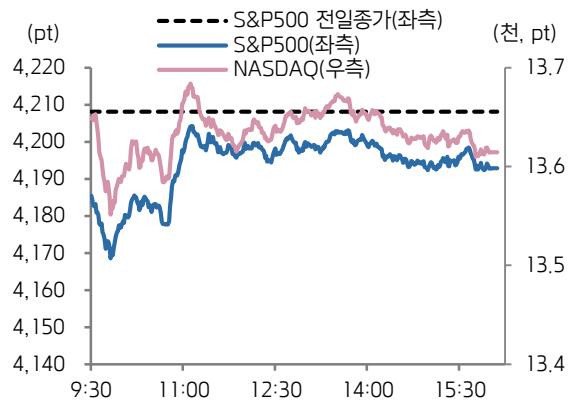
5 월 ADP 민간부문 신규고용은 97.7 만건으로 전월(74.2 만건) 예상치(65.0 만건)을 큰 폭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. 상품 생산 관련 고용이 12.8 만건 증가한 반면, 서비스업 고용이 86.0 만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민간고용의 호조세를 견인.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38.5 만건으로 전주(40.6 만건) 및 예상치(39.0 만건)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작년 3 월 코로나 판데믹 이후 처음으로 30 만명대에 진입.

미국 증시 평가

연준은 지난해 3 월 코로나 판데믹 대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입했던 유통시장 내 회사채 및 채권 ETF(SMCCF, 유통시장 기업신용기구 프로그램)를 연말까지 매각하기로 결정. 예외적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해당 프로그램은 당시에 한도를 7,500 억달러까지 설정했으나, 실제 매입분은 약 140 억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연준의 금번 결정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음. 그러나 인플레이션 급등 및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, 이 같은 연준의 정책 변화가 시점 상으로 민감하게 작용했다고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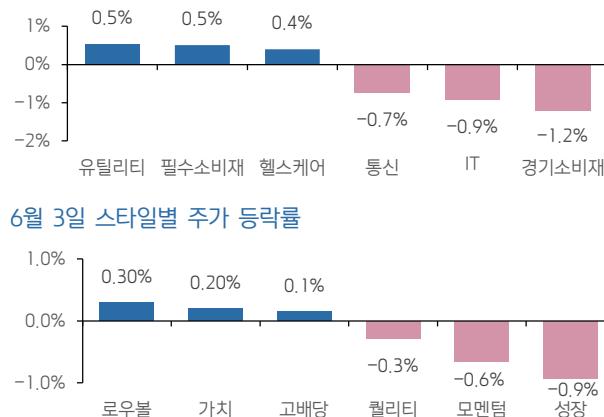
백악관에서 공화당에게 1 조달러 규모로 축소된 인프라 투자안을 제시함에 따라 해당 안건의 타협 기대감을 높여줬다는 점은 중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추가 확장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. 다만, 단기적으로는 4 일(금) 5 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, 10 일(수) 5 월 소비자 물가 결과 발표 전후로 시장의 경계심리가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.

S&P500 일중 차트(6월 3일)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6월 3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 check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23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1.07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27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,116.5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/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주요 체크 사항

- 외국인 순매수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
- 지수 레벨 부담으로 인한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
- 업황 센티멘트가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2거래일 연속 강세 여부

한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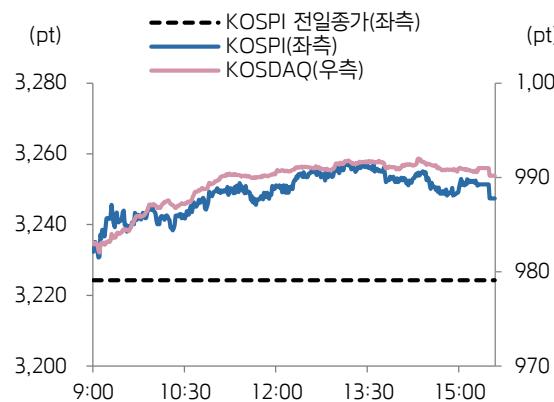
3 일(목) 한국 증시는 경기 민감주들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에도, 업황 호조 기대감이 부각된 삼성전자(+2.5%), SK 하이닉스(+2.4%) 등 반도체 포함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세를 보임에 따라 상승 마감(코스피 +0.7%, 코스닥 +0.9%)

업종별로는 의료정밀(+2.9%), 전기전자(+2.3%), 제조업(+1.2%) 등이 강세, 철강금속(-1.6%), 보험(-1.0%), 음식료(-0.6%) 등이 약세.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간이 각각 2,314 억원, 4,478 억원 순매수, 개인이 6,833 억원 순매도를 기록(업종 및 수급, 코스피 기준)

한국 증시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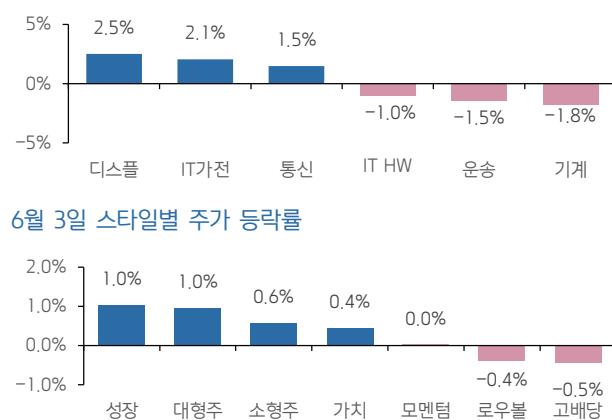
한국 증시는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한 것에 대한 단기 레벨 부담감이 상존한 가운데, 달러화 강세, 미국 고용지표 경계심리로 인해 약세 압력이 우위에 있을 것으로 전망.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 여건이 반도체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현상이다, 중기적으로 한국 증시를 낙관할 수 있는 요인.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주식 비중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감안 시, 이후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. 다만, 전일 미국의 ADP 민간 고용 서프라이즈로 금일 밤 발표 예정인 5 월 비농업부문 고용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을 감안 시 금일 외국인 수급 유입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(6월 3일)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6월 3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